



양현종 다시, 기로에 서다

텍사스서 또 방출대기... 시즌 12경기서 3패 기록
마이내리그 잔류냐 국내로 유턴이냐 선택의 시간

양현종이 다시 또 뜨거운 이름이 됐다. 지난 15일 미국 프로야구 마이내리그로 내려갔던 양현종이 하루 만에 방출대기(designated for assignment) 조처됐다. 소속 팀 텍사스 레인저스로는 16일 부상에서 회복한 외야수 윌리 칼훈을 40인 로스터에 포함하기 위해 양현종을 지명 할당했다. 올 시즌 두 번째 방출대기다.

올 시즌 우여곡절 미국으로 건너간 양현종은 마이내리그에서 개막을 맞은 뒤 4월 27일 '빅리그 입성'이라는 첫 번째 꿈을 이뤘다.

하지만 선발과 중간으로 8경기에 나선 그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6월 17일 마이내리그로 돌아갔다. 그리고 방출대기 신분이 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당시 양현종은 텍사스의 마이내리그 트리플A 라운드룩과 마이내리그 계약을 하며 KBO 복귀 대신 도전을 선택했다.

라운드룩에서 빅리그 재입성을 준비한 그는 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8월 25일 다시 메이저리그로 향했다.

8월 29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구원 등판해 2이닝을 소화했지만, 다음 기회를 얻지 못하고 1일 마이내리그행 통보를 받았다.

엔트리 확대로 하루 만에 극적으로 빅리그에 콜업된 양현종은 이후 4경기에서 어필 무대를 가졌다.

하지만 14일 휴스턴전에서 2.1이닝 동안 2개의 홈런을 맞는 등 4경기에서 불펜으로 나와 6.1이닝 4실점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결국 라운드룩으로 돌아간 양현종은 하루 만에 지명 할당대 또 갈릴길에 섰다.

선택의 기로에 선 양현종의 거취는 KBO리그의 관심이 됐다. KIA도 양현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7년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양현종은 14시즌을 뛰면서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좌완으로 활약했다. 그리고 팀은 물론 KBO를 대표하는 선수로 우뚝 선 그는 세 번째 도전 끝에 미국으로 향했다.

양현종은 앞서 두 차례 해외 진출에 도전했다. 2014년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처음 미국 진출을 노렸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낮은 금액에 '자존심'을 선택했다.

2016시즌에는 자유계약(FA) 신분으로 해외 진출을 타진했지만 역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KBO리그 잔류로 방향을 바꿨다.

양현종이 해외 진출 선언을 하자, 최형우 영입에 '올인'했던 KIA는 예상치 못했던 유턴에 단년계약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또 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외 진출을 보장하면서 양현종을 붙잡았다.

그리고 양현종은 4년이 지난 뒤 '친구' 김광현에 이어 빅리그 도전에 나섰다. '마지막 기회'를 맞은 양현종은 '마이내리그 계약'까지 감수하며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빅리그 진출이라는 꿈은 이뤘지만 올 시즌 MLB 12경기에서 35.1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은 승리 없이 5.60의 평균자책점으로 3패만 기록했다. 9개의 피홈런도 기록했다. 마이내리그에서도 10경기(45이닝)에 나와 10개 홈런을 맞는 등 5.60의 평균자책점으로 3패만 남겼다.

냉정한 현실을 마주한 양현종과 KIA를 포함한 KBO 구단들이 복잡한 셈을 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가위 연휴 ... 스포츠 경기 볼거리 풍성

광주FC, 안방 2연전 잔류 굳히기
KIA, 추석날부터 홈 6연전
추석장사씨름대회 17~22일 열려
손흥민 20일 첼시전에서 복귀

광주FC가 추석 연휴기간 안방에서 2연전을 치르면서 K리그 1 잔류를 위한 자리 굳히기에 도전한다. KIA타이거즈는 추석인 21일부터 홈 6연전을 갖고 팬심 돌리기에 나선다.

광주는 18일 오후 4시 30분 제주를 상대한다. 21일 오후 4시 30분에는 전북과 '한가위 대첩'을 벌인다.

광주는 지난 11일 성남 원정에서 허을과 김주공의 헤더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장단 첫 K리그 4연승에는 실패했지만 선제실점을 하고도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었다.

최하위에서 고전하던 광주는 최근 3연승에 힘입어 9위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10위 성남과는 승점 1점 차, 최하위 서울과도 3점 차의 치열한 순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18일 30라운드 경기에서 만나는 상대는 승점 5점 차 8위 제주다. 광주는 최근 분위기를 살려 제주를 상대로 9위 굳히기에 나선다.

최근 안방에서 광주의 흐름이 좋다.

지난 6월 순연 경기였던 14라운드 서울전 무승부를 시작으로 강원, 인천, 성남전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는 등 후반기 홈 무패를 달리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6골을 만드는 등 광주의 고민이었던 '공격'의 상승세가 고무적이다.

지난 성남 원정에서 기다렸던 허을의 K리그 데뷔골이 나왔고, '셋발' 엄지성도 이날 프로 첫 도움을 올리는 등 신예 선수들이 공격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주공도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등 광주가 공격 다변화에 성공했다.

올 시즌 광주는 제주와 2경기에서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지만 승리를 가져올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3월 20일 제주 원정에서는 엄원상이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힘든 시즌 초반을 보내기도 했다.

광주가 매서워진 창으로 제주를 꺾고, 21일 전북과의 대결까지 무패행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정길에 나선 KIA는 추석날 안방으로 복귀해 홈 6연전 일정에 나선다.

15일 롯데와의 더블헤더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았던 KIA는 대구에 이어 잠실로 가서 LG를 상대하고 광주로 복귀하게 된다.

추석 당일인 21일과 22일 KT를 만나고, 23·24일에는 두산, 25·26일에는 SSG와 홈에서 상대한다.

"가을 잔치"의 꿈은 멀어졌고 사실상 의미 없는 8위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고도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들러리 신세로 전락했지만,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 '고춧가루' 부대로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더블헤더가 진행된 15일, 롯데 원정 응원단도 챔피언십필드를 찾았지만 1-2차전 함께 관중수는 1007명에 불과했다. 1차전 관중은 389명, 2차전 관중은 618명이었다.

새 외국인 선수 보 다카하시 합류라는 호재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KIA는 추석 홈 연전에서 좋은 경기력과 정상적인 선수단 운영으로 팬심 돌리기에 나서야 한다.

한편, '위더스제약 2021 추석장사씨름대회'가 17~22일 충남 태안군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첫날인 17일에는 태백급(80kg 이하) 예선이 치러지고, 18일 태백장사 결정전을 시작으로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이 차례로 열린다. 태백급에서는 허선형(영암군민속씨름단)이 한가위 장사 쫓가마에 도전하고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이 장사 등극을 노린다.

손흥민(토트넘)은 20일 0시 30분 첼시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경기 때 그라운드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40만달러)은 한국 선수들이 모처럼 낭보를 전해줄지 관심이다.

안산(광주여대), 김제덕(경북일고) 등 양궁 대표팀은 19~26일 미국 양크턴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또한 번 무더기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홀드 1위 장현식 "체력은 실력"

21 홀드로 타이거즈 최다 홀드 타이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다. KIA 타이거즈 장현식(사진)에게 체력은 '실력'이었다.

장현식은 지난 15일 롯데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타이거즈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5-3으로 앞선 7회 나온 장현식은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팀의 승리를 지키고, 21번째 홀드를 수확했다.

이 홀드와 함께 장현식은 2015년 심동섭이 기록한 타이거즈 최다 홀드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날 리그 홀드 단독 1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장현식은 "타이거즈가 사라지는 날까지(최다홀드) 기록 보유자로 남고 싶다"며 "상황이 되는 대로 몸이 따라줄 때까지 하고 싶다. 홀드왕에 대한 욕심은 없다. 하다 보니까 된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본"에 충실했던 장현식의 노력이 빛을 발한 2021시즌이다. 장현식은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NC에서 KIA로 이적했다. KIA 마운드의 새로운 활력소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지난 겨울 첫 스프링캠프도 2군 선수단에서 소화했다. 조용히 칼을 갈면서 시즌을 준비했던 그는 체력이 집중됐다.

장현식은 비시즌에도 일요일만 빼고 매일 혼자서 달리는 등 6~7시간 훈련을 했다. 체력을 키우면서 기본에 충실했던 장현식의 노력은 시즌이 더해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장현식은 "중간에 힘들어서 헤메기도 했는데 마음 먹은 대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운동을 많이 했다. 운동으로 단련한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매일 꾸준히 했던 게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기할 때도 '몸'을 먼저 생각한다.

장현식은 "기초 체력을 신경 쓰고 있다. 스트레칭도 매일 한다. 불펜에서 대기할 때 공을 많이 던지는 것보다는 뛰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다. 예전에는 많이 던지고 감을 빨리 찾아서 올라가자는 생각이 쫓겼다. 뛰면서 준비하는 게 몸도 더 빨리 풀리고 좋은 상태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즌 전 선발 후보였던 장현식이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많이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 보이지 않은 노력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결과. 장현식은 동료를 먼저 이야기한다.

장현식은 "시즌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인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다. 뒤에서 수비해주는 팀 동료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항상 열심히 던지자는 생각으로 했다. 불넷을 많이 줘서 수비수들이 고생 많이 했다. 잘 버텨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며 "지금까지는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아보고 싶다. 그러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겠지만 언제까지 힘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동료 모두가 고생하고 있다.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 같이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며 남은 시즌 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